

국가별 동향



영국

아르헨티나 가금류 시장 재개방



영국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2023년 중단되었던 아르헨티나의 가금류를 다시 수입했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공식 서한을 통해 아르헨티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없는 국가임을 자체 선언한 것을 인정하고 영국 영토에서 가금류 고기 수입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다고 알렸다. 영국의 이번 결정은 아르헨티나에서 들어오는 신선한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험이 없다는 국가기관의 정보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avinews]



네팔

USAID, 네팔과 가금류 활동 파트너십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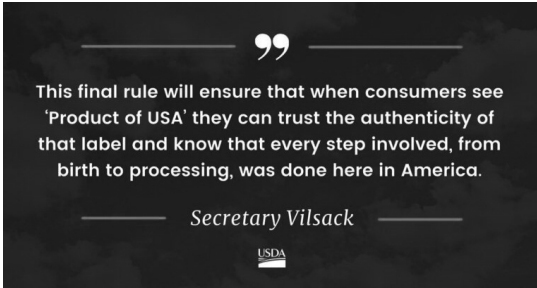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룸비니 주 부트왈(Butwal)에서 가금류 활동을 위한 USAID 파트너십을 시작했다. 네팔 회사인 Shreenagar Agritech가 시행하는 3년간의 200만 달러 규모의 USAID 활동은 가금류 시장 시스템을 강화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민간 부문 주도 성장을 위해 7,000개의 소규모 농민과 기업의 소득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가금류 산업은 네팔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광범위한 경제 성장을 주도하면서 필수 고용, 소득, 식량 안보 및 영양을 제공한다. 네팔의 농촌 경제에서 가금류 사육은 특히 여성과 소외 계층에게 필수적인 자영업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 및 관광과 같은 핵심 부문을 지원한다. 연방 농업 및 가축 개발부 장관인 Rewati Raman Poudel 박사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출시 행사에서는 뛰어난 계약 농가를 축하하고 USAID 활동을 통해 가금류 농가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향상된 서비스를 선보였다. 출시 행사에 참석한 미국 대사관 공관 차석인 Jason Meeks는 네팔에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 산업을 구축하는 데 있어 USAID 파트너십의 역할과 전국 지역 사회의 식량 안보 및 영양 개선에 대한 기여를 강조했다. [U.S embassy in Nepal]



미국

'미국산' 라벨은 미국산 육류, 가금류 및 달걀에만 적용



로이터 통신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살되고 가공된 동물에서 나온 고기, 가금류, 계란을 미국 제품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에 제안된 이 규칙은 해외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미국에서만 도살하거나 가공하는 회사의 자발적인 라벨 사용이 국내 생산자를 오해하게 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수년 동안 주장해온 미국 목장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 최종 규칙은 소비자가 '미국산 제품'을 볼 때 해당 라벨의 진위 여부를 신뢰할 수 있고 탄생부터 가공까지 관련된 모든 단계가 이곳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farm policy news]



이탈리아

아프리카 및 지중해 가금류 포럼



아프리카와 지중해의 가금류 포럼 및 B2B는 가금류 사육에 관한 국제 행사로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의 리미니 엑스포 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는 가금류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과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전체 공급망과의 네트워킹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기회이다. 첫째 날은 이탈리아

가 가금류 공급망에 대해서, 둘째 날은 아프리카와 지중해의 가금류 부문 발전에 초점을 맞춘 국제 문제에 초점을 둔다. 동시에 박람회에 초대된 기술, 유전학 및 이에 관심이 있는 여러 국가의 수 많은 구매자들을 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5월 10일 금요일에는 해당 분야의 과학 협회인 세계 가금류 과학 협회(World's Poultry Science Association)와 협력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탈리아 가금류 양식에 중점을 두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 과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컨퍼런스가 열린다. 또한 행사 내에는 아프리카 및 지중해 국가의 외국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비즈니스 라운지가 있으며, 이곳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할 수 있다. [EFA news]N 양계